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지난 주에 에스라 하셨나요? 행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귀한 경건의 훈련이 되길 축복합니다.
3. 교회 홈 페이지(springwellpc.org)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4. 교회 주보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새롭게 시작한 제자 양육 제3과정(매주 금요일 저녁 8시)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6. 10월 6일 주일에 아프리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7. 교우소식
김대희 전도사님 이사했습니다 / 1520 Dun-lo Ave. Arlington Hts.
곽 에스더 목사님(김대희 전도사님 모친)/천지연 시카고 방문 중
윤수찬/강선옥 집사님(윤하영 부모님) 시카고 방문 중

9월 예배위원

안내	박래석	최명희
기도	조은영(1) 박래석(8)	한정임(15) 한규철(22) 김정신(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교회 학교	청년회	에스라 운동	금요 제자 양육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행하는 교회



골로새서 2장 6-7절

- > 뿌리를 박으라
- > 세움을 받으라
- > 굳게 서라

6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 일 예 배 2024년 9월 22일 오후 1시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찬송하는 소리 있어 / 찬송가 19(신) 44(구)

*성시 교독 /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의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380(신) 424(구)

기도 / 한규철 집사

성경 봉독 / 요한복음 19장 1-16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마지막 강함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찬송가 508(신) 270(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 교 요약

1. 빌라도는 전형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빌라도)은 '자신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기에 '잘못'에 대한 절대적 기준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빌라도에 관한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2.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장의 현장은 현 세대와 흡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죽이려 할 때, 타협하지 않는 강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IL 60005

Tel) 630.673.9207

생명샘 에스라 부흥 운동

기도 저를 죄에서 구속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찬송가 79(신) 40(구)

말씀 읽기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 9장 1-15절

1. 에스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은 무엇인가요(7:10)?
2. 이스라엘 땅에 살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이었나요(9:1-2)?
3.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였습니까(9:4)?
4.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무엇이라 고백하나요(9:10)?

정리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렇게도 귀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는 정욕의 모든 것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함도 이 세상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만을 소원합니다.

기도 주기도문

기도는 말씀을 기도할 때 가장 큰 응답을 약속 받습니다.

빌립보서 1장 9-10절의 기도문입니다.

눈을 감고, 가사를 생각하며, 천천히, 찬송해 보세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약 / 좁은 길에 서 있는 주님 / 요18장 28-40절

-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물론 미려한 질문인 것을 압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언의 말씀과 이루어진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가 읽더라도 믿을 수 있는 성경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이러한 말씀이 '말씀' 자체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선포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더욱 의지가 되는지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말씀인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 이 말씀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약속'이 남아 있다고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약속'은 다름아닌 주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 예언의 말씀 모두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써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길'에 관하여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이 '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내 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조금은 무서울 정도로 이상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약속을 품은 성도들은 이 '좁은 길'에 최소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먼저 가시고 끝내는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의 끝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2.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말하며 살아야지요. 삶으로 살아낼 때, 태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 그렇게 살게 되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맘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은 길'이지요.

3. 우리는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